News Release 2011.07

정유기업, 유가 오를수록 수익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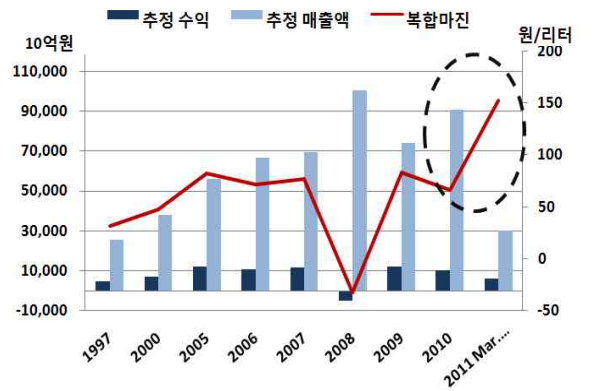
2011 1Q 마진 153원 2.3배 개선 … GS, 국제가대비 77원 최고차익 챙겨

정유기업들이 2011년들어 복합마진이 크게 개선되는 등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고유가 시대에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경제연구원(CMRI, 원장 박종우, www.chemlocus.co.kr)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기준 복합마진*은 리터당 153원으로 2010년 리터당 66원에 비해 2.3배 개선되었으며 2009년 83원에 비해서는 1.8배 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석유제품 판매 2달전 산유지 가격을 120일 USANCE 및 환율, 원유수입관세, 수입부과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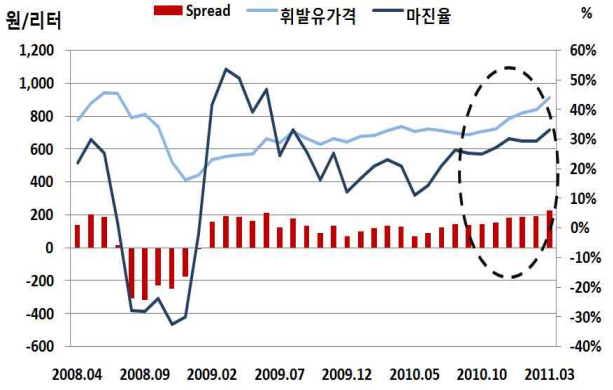
또 2011년 1/4분기 기준 4대 정유기업의 추정매출액은 30조145억원, 수익 5조914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하고 있어 2010년 추정매출액 90조639억원, 수익 10조96억원으로 약 11%의 영업이익률을 올린 것에 반해 정유기업의 수익구조가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11년들어 오히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유기업 복합마진 및 수익 추정



Source) Petronet, CMRI, BOK * 120일 Usance 방식 적용.

휘발유 마진율 추이 (1998.04-2011.03)



Source) Petronet, CMRI, BOK * Spread=세후 원유도입 가격-제품 가격

원유도입가 대비 휘발유 가격에 대한 단순 차이를 비교하여도 2011년 1/4분기 정유기업의 마진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 평균 세후 원유 도입가격이 리터당 590원, 휘발유 판매가격은 713원으로 리터당 123원의 차익을 남긴것에 반해 2011년 1/4분기에는 원유 도입가격이 692원으로 17.2% 인상된 것에 반해 휘발유 판매가격은 858원으로 20.3% 인상돼 차익도 리터당 166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유제품 내수가와 수출가의 가격갭 및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갭은 점차 좁아지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내수가가 수출가보다 높고 국내 거래가격이 국제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휘발유의 평균 수출가격은 배럴당 88.4달러였으나 내수가격은 98.1달러로 내수가격이 9.6달러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및 2006년의 가격차이인 배럴당 14.2달러, 14.8달러에 비하면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의 갭이 줄어든 것이기는 하나 2009년 수출가격 70.5달러, 내수가격 75.9달러로 두 가격의 차이가 5.4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확대된 것이다.

국내 정유기업들이 원유가격이 급상승하자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서 수익구조를 보존하려 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한편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을 단순히 비교하여 보아도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나 2010년 휘발유의 국제가격이 리터당 661원이었던 것에 반해 국내가격은 730원으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리터당 69원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2011년에는 그 폭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2011년5월까지 평균가격 기준 국제가격은 845원이었던 것에 반해 국내가격은 881원으로 국내가격이 리터당 35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기업별로는 국제 휘발유 가격 대비 국내가격에서 가장 큰 차익을 남기고 있는 기업은 GS칼텍스로 2011년 1/4분기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813원이었던 것에 반해 내수판매 가격이 890원으로 리터당 77원의 차익을 올렸다. 같은 시기 휘발유의 국제가 대비 차익은 S-Oil은 리터당 68원, SK에너지 65원, 현대오일뱅크 62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1/4분기 GS칼텍스가 리터당 71원, SK에너지 63원, S-Oil 59원, 현대오일뱅크 53원의 차익을 올린것 보다 2011년 1/4분기들어 리터당 2-9원 확대된 것이다.

* 복합마진 = {석유제품 총 판매금액 (석유제품가격*석유제품판매량, 수출 및 국제방카링포함)} - {원유 도입가격(관세, 수입부과금 포함)}

(문의사항) 컨설팅사업부
화학경제연구원
서경선 상무 (02-2108-8070)
sks@chemlocus.com
태엄철 연구원 (02-2108-8070)
tec@chemlocus.com